

## I. 서론

### 1.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사태와 팬데믹 선언

- 1) **팬데믹**: pan 은 '모두', demic 은 '사람'
- 2)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이 발생해, 쉽게 퍼지는 것

### 2. 팬데믹의 10 대 역사<sup>1</sup>

- 1) 안토니우스 역병(165 년, 500 만명): 천연두 혹은 홍역 추정
- 2) 유스티니아누스 역병(541-542 년, 2,500 만명): 페스트 일종
- 3) 흑사병(1346-1353 년, 7,500 만-2 억 명): 페스트 일종
- 4) 3 차 콜레라(1852-1860 년, 100 만명): 콜레라
- 5) 러시아 독감/아시아 독감(1889-1890 년, 100 만 명): 인플루엔자
- 6) 6 차 콜레라(1910-1911 년, 80 만 명): 콜레라
- 7) 스페인 독감(1918, 2 천-5 천만 명): 인플루엔자
- 8) 아시아 독감(1956-1958, 200 만 명): 인플루엔자
- 9) 홍콩 독감(1968, 100 만 명): 인플루엔자
- 10) 에이즈(2005-2012, 3600 만 명): 에이즈

### 3. 팬데믹(Pandemic) 영향

- 1) **충격적인 영향**: 통제불가능시
- 2) **불평등의 심화**: 빈곤계층에 치명적
- 3) **불확실의 불안**: 예측과 원인 실패로 인한 **두려움/공포**
- 4) **통제력의 저하**: 대부분의 팬데믹은 사스처럼 통제 가능(인플루엔자 예외)
- 5) **패닉과 분노**: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

## II. 그리스도인의 대처는 어떠해야 하는가?

### 1. 반응

- 1)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 2)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 3) **우리 집/교회/지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가 없습니다!**

### 2. 이유

- 1)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민 16, 25 장, 신 28 장)
- 2) **말세의 징조**일 수 있다(눅 21:11, 계 16)
- 3)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일 수 있다(출 12,15, 요 9:3)

### 3. 유의

- 1) 특정 팬데믹이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전 9:11)

<sup>1</sup> 황을호, 대유행병과 기독교

- 2) 개인 비극/재앙이 반드시 그 사람 죄의 결과라 할 수 없다(삼상 1, 요 9:1-3)
- 3) 타락한 세상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다(갈 1:4)
- 4)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불행이 없어질 것이다(계 21:4)

#### 4. 자세

- 1)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한다
  - ①.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롬 11:36)
  - ②.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한다(롬 8:28)
- 2)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 ①. 선부른 판단으로 자신/타인을 상처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딤후 5:23)
  - ②. 국가정책과 전문가들 지침 존중해야 한다(벰전 2:13-14,17)
  - ③. 마틴 루터의 편지<sup>2</sup>
- 3)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낸다
  - 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도와야 한다(롬 15:26, 연보)
  - ②. 초대교회의 본<sup>3</sup>
    - a. 고대사회와 종교: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를 돌보지 않았다
    - b. 유행병으로 하루 5천 명이 죽어갔다.
    - c.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사람들에게 보여 준 모습에 감동
- 4) 기도한다
  - ①. 대하 7:13-15
  - ②. 자신만 아니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환자들 위해
  - ③. 선교사들과 교회와 성도들

### III. 예배와 주일성수<sup>4</sup>

#### 1. 안식일과 주일

##### 1) 안식일

- 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막 2:23-28)
- ②.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막 2:28)
- ③.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막 3:4)

---

<sup>2</sup> Martin Luther,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sup>3</sup>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sup>4</sup> 주승종, 주일설교 참조

- ④. 근본정신
  - a.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함(하나님 사랑)**
  - b.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웃사랑)**
- ⑤. 바리새인들은 **근본정신을 무시, 인간의 전통과 형식으로 정죄/판단**

## 2) 주일

- ①. 예수님의 부활 기점
- ②. 초기에는 안식일과 주일 양일을 지킴
- ③. 갈수록 유대 기독교인보다 이방 기독교인이 많아져 주일로 정착
- ④.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기념함
- 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sup>5</sup>

## 2. 예배당과 교회

### 1) 예배<sup>6</sup>

- ①. **예배의 구분: 사적예배와 공적예배**
- ②. **예배의 이유**
  - a. 하나님께 영광
  - b. 은혜를 받음
  - c. 말씀을 아는 지식의 성장
  - d. 믿음의 고백과 강화
  - e.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
  - f. 믿지 않는 자의 **중생**과 회심

### 2) 예배당

- ①. 온 회중이 함께 교회에서 모이는 **“대중(주일)예배를 잠시 유보하는 것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면”**<sup>7</sup>
- ②.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은 주의해야 하지만,
- ③. 일시적이거나 지혜로운 결정이 오히려 옳을 수 있다
- ④. **기존의 성전은 사실상의 예배당**

### 3) 교회

- 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고전 3:16**)
- ②.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성에 있다**
- ③. **교회된 공동체를 위해 예배당이 필요**
- ④. **공동체가 없다면 예배당 무용**

<sup>5</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 장, “그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그 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시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sup>6</sup> 손재익, 특강 예배모범

<sup>7</sup> 김동권(영남신학대학), “온라인 주일예배에 대해”

4) 선택

- ①. 조직의 생존이 아닌, 공동체 우선의 선택과 결단 필요
- ②. 안식일/주일 전통? vs 근본정신(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 ③. 예배당? vs 교회(성도와 공동체)!

3. 가나안 교회 대응방안(현재 3 단계)

단계	구분	상황	대응
1단계 (노랑)	주의	1. 일리노이 및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나온 경우 2. 교육부/카운티 정부 권고 및 지침 나올 경우	1. 모든 공예배(주일, 주일학교, 금요, 새벽)이외의 모든 모임(각종 훈련과 부속기관 운영)을 연기 혹은 취소 2. 악수 대신 목례, 손세척 철저 등 기존 예방수칙 준수 3. 사회적 거리(2m) 유지
2단계 (주황)	경계	1. 지역사회에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경우 2. 한인사회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1. 주일예배 이외 모든 주중예배(금요/새벽), 기타 사역 일시 중단 2. 교회 음식 친교 잠정 중단 3. 주일예배도 노약자와 환자 등은 가급적 온라인/가정예배 권장
3단계 (빨강)	심각	1. 한인/지역사회 확진자가 급속 증가할 경우 2. 교회 안/교인/교인 가족 확진자 발생한 경우	1. 주일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 취소 2. 교회 잠정 close 및 예배당 출입금지 3. 온라인 예배 및 가정예배를 위한 자료 제공

IV. COVID-19 이후를 고민

1. 배워야 할 몇 가지<sup>8</sup>: "무엇이 중요한가!"

1) 우리의 연약함

- ①. 재채기 한 번에 비행기 회항
- ②. 마스크 품귀, 휴지 사재기
- ③. 총기 구매가 급증한 사회의 민낯

2) 우리의 동등함

- ①. 인종, 대륙 초월(중국-한국-이탈리아 텃)
- ②. 먼 나라의 일 아닌 우리의 일
- ③.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3) 우리의 한계

- ①. 백신개발의 지연
- ②. 이기주의의 만연

4) 우리 삶의 허황됨(전 1:2)

5) 우리의 소망(요 11:25-26)<sup>9</sup>

<sup>8</sup> Mark Oden, Gospel Coalition 아티클 참조

<sup>9</sup>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 2. 총체적 신앙 형식의 불가피한 변화

### 1) 예배

- ①. 인터넷 예배/드라이브 스루/인 예배까지 상상이 현실로 되어감
- ②. 바울 당시 예배: 저녁, 식사 후, 심포지움 형식의 설교와 성경공부
- ③. 로마화 하면서 일방적 예배와 형식적인 식사로 변화 후 예전화

### 2) 신앙생활

- ①. 1 세기 초대교회 성도 이야기<sup>10</sup>
- ②. 대그룹 대신 소그룹 중심(기동성 강조<sup>11</sup>)
- ③. KEY: 조직의 유지 아닌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생명력

### 3) 공동체의 재건<sup>12</sup>

## 3. 참된 공동체의 재건의 계기

- 1) 이암마을 이야기<sup>13</sup>: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는 공동체
- 2) 무모하지 않되 지혜로운 공동체
- 3) 일상의 귀함을 깨닫는 공동체(골 4:2)
  - ①. 예배의 귀함
  - ②. 성도의 귀함
  - ③. 그리스도의 귀함

## V. 결론

1. COVID-19: COrona VIrus Disease -19?
2. COVID-20: Christ Of VIctory is Dominating!
3. 이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0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sup>10</sup> 로버트 벅크스, '1 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 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참조

<sup>11</sup> 하워드 스나이더,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sup>12</sup> 데이빗 웰스, 용기있는 기독교

<sup>13</sup> Everyday Heores: A Story of Self-Sacrifice & Bubonic Plague, "영국의 이암(Eyam)이란 마을에는 14 세기에 유행했던 흑사병이 다시 창궐한 적이 있었다. 1665년 9월, 양복점을 하던 비카스(Viccars)는 런던에서 온 천을 인수한다. 받은 옷감이 축축해서 그는 그걸 펼쳐 불 앞에서 말렸는데 그 안에는 흑사병을 유발시키는 벼룩들이 있었다. 그는 일주일만에 사망했다. 곧바로 마을에 급격히 흑사병이 번지면서 사람들은 공포에 빠져 감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피신하려고 했다. 그때 그 마을의 두 명의 목회자 몸페슨(William Mompesson)과 스탠리(Thomas Stanley)가 공동 설교를 하며 마을 사람들을 설득한다. 이웃 마을로 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스스로 마을 전체를 격리하자는 것이었다. 설교에 감화된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를 격리하기로 하고 궁극적인 희생을 선택한다. 실제로 마을 전체에 돌담을 쌓아 스스로를 봉쇄했다. 외부인들이 음식과 생필품을 전달하면, 물과 식초가 담긴 우물에 동전을 넣어 소독된 돈으로 그 값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4 개월을 지낸다. 마을 사람 중에 비극을 피한 사람은 없었다. 그 중 엘리자베스 한콕이라는 여성은 남편과 6 명의 자녀를 8 일만에 모두 잃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직접 가족들의 시신을 묻는 고통스런 경험을 한다. 몸페슨 목사의 아내를 포함해 마을 사람 2/3 가 죽었다. 총 350 명이던 주민들 중 90 명만 살아 남았다. 이렇게 희생을 택한 마을 주민들의 숭고한 죽음으로 인근 어떤 곳에서도 이 병에 걸리는 사람 없이 이 전염병은 1666년 11 월에 막을 내렸다."